
2020년 포토폴리오

작가 아원

저는 한지라는 소재에 매력을 느껴 계속 작업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지라는 소재는 자유자재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변수와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새로운 발견인 동시에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기법을 만들었고 일반한지 보다 단단하며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살리고 연구하여 우리나라 한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法
순지 오브제
130x130 / 2018

法이라는 작품은 무한한 확장(우주), 앞과 앞 사이의 연계(인연), 한지와 밀풀의 만남(유연,소통,자유자제) 등으로 하나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삶의 법칙, 우주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을 대하는 작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주 순지 오브제 / 90x130 / 2016





탄생 /순지 오브제 / 89.4x145.5 / 2016



꽃잎의 반복적인 선의 패턴을 통해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본 작품들은 꽃이라는 틀을 벗어 무한해졌습니다. 중
심을 기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지는 꽃잎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
다. 나열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크기와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꽃은
꽃의 영역을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어머니의 품, 에너지
의 파장, 흐름, 우주, 만다라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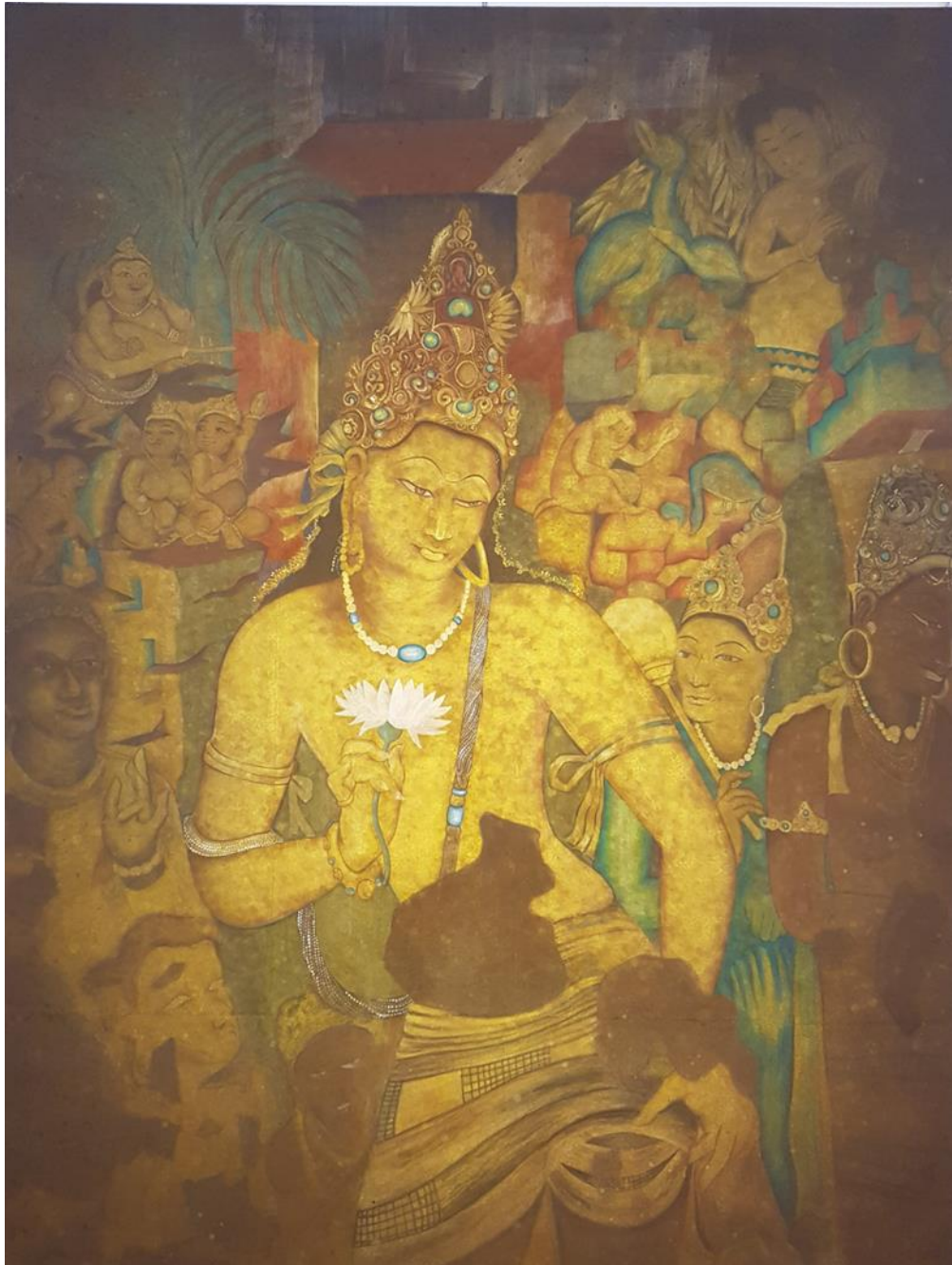
설치작업 및 응용작업





단청
순지 오브제
30x30 / 2016

채색작업



Padmapani
장지에 채색 / 193.9x259.1 / 2018



첫개인전 전시장면

인도여행 중 아잔타석굴에서 연꽃을 든 보살님의 벽화를 보고 그 순간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언어보다도 진한 감동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천년 전 작품에서도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나도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행은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출가 후 10여년 만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아이
장지에 채색 / 90.9x65.1 / 2016



무제 / 장지에 채색 / 53.0x72.7 / 2016



水蓮
한지에 채색 / 72.7x53.0 / 2019



발우
72.7x53.0 / 아크릴 / 2016



국화 / 장지 / 89.4x145.5 / 2015



시작
23x23 /한지에 채색
2018



목련
한지구김에 먹/ 54x33.3 / 2017



定見 / 장지에 채색 / 162.2x97 / 2015



춤 145.5x97 / 장지에 채색 / 2016



분홍연꽃
수간채색 / 100x100
2017



개달음 / 한지 / 30x90 / 2018



민들레 흩씨되어 / 65.1x53 / 한지구김 채색 / 2019



맑은 대화 / 한지에 채색 / 33.4x53 / 2015

디자인 작업

제1회 조계종학인 설법대회

설법, 세상을 꽃피우다

본선
 일시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예선
 일시 2017년 6월 1일(목) 오전 9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설법 주제
 참가자가 자유롭게 설정

참가 대상
 기쁘고육기관 재학 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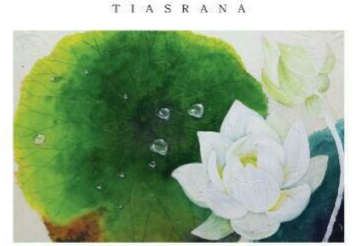
시상
 대상 1명 / 최우수생 2명
 우수생 3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금강품**
 경남 함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73-44
 TEL : (055) 932-7341
 510200



부처님의 약속을 노래
 MASTER / I JUST WANT TO GO



부처님의 약속을 노래
 MASTER / I JUST WANT TO GO
 태일의한명





H: 010.3642.6696
klkim0413@gmail.com